

‘강한 여당’ 존재감 부각...국정 운영 조력 체제 정비 급선무

이번 없었던 민주 전대...새 지도부 과제

야당과 협치 통한 개혁 입법 기대
건강한 당·정·청 관계 조성 임무
대야 강성 이미지 등 불식 과제

■ 이해찬 대표 승리 요인

집권 20년 플랜·강한 리더십 주요
권리당원·여론조사 등 고른 득표
득표율 42.88%...2위와 12.15% 差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이해찬 의원이 선출됐다. 사실상 대세론은 실재했고 이번은 없었다는 평가다.

지난 2016년 8·27 전당대회 당시 추미애 의원도 친문(친문재인) 물표를 받으며 과반(54.03%)의 압도적 승리를 거뒀다. 이 대표 역시 42.88%의 총 득표율로 여유 있게 승리를 따냈다. 2위 송영길 후보(30.73%)는 선전했으나 10%포인트가 넘는 격차로 고배를 마셔야 했다.

이 대표는 무엇보다 ‘관망표’가 많을 것으로 예측됐던 권리당원 투표에서 42.79%의 득표율을 기록, 승기를 굳혔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상대적으로 고 정표가 많은 대의원(40.57%)에서도 40% 넘는 득표율을 올렸고, 국민여론조사에서 44.03%, 일반당원 여론조사에서는 38.2%를 찍으며 고르게 표를 가져왔다.

특히, 당의 안정적 운영과 아울러 ‘집권 20년 플랜’이라는 선명한 노선을 효과적으로 전달한 것도 주요 승리 요인으로 꼽힌다.

정부·여당이 본격적인 개혁 드라이브에 나서야 하는 상황에서 1년 10개월 앞으로 다가온 21대 총선의 승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경륜을 바탕으로 하는 ‘강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당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이 대표는 경선 기간 내내 “당·정·청 회의만 100번가량을 했다. 엄격한 김대중 대통령 모시고 정책위의장만 3번을 했다”며 당·정·소통의 적임자라고 강조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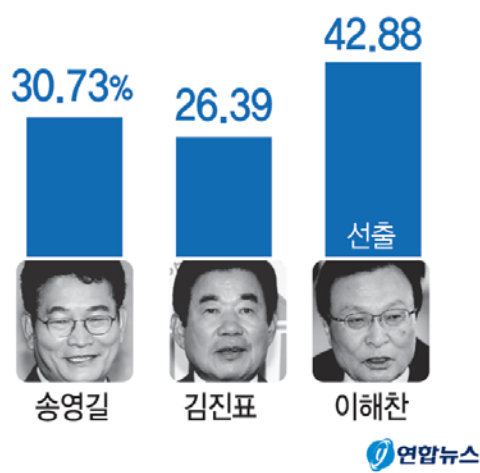
여기에 집권 이후 여당이 청와대에 끌려만 다녔다는 지적도 거뒀던 만큼 ‘강한 여당 대표’를 내세워 당 존재감을 키워야 한다는 당내 목소리도 이번 전당대회 표심에서 적잖게 표출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신임 대표는 곧바로 당이 직면한 많은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우선 당이 문재인정부의 국정 운영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체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 결과

대의원(1만5천명) 투표 비중 : 45%
권리당원(71만명) ARS 투표 : 40%
국민·일반당원 여론조사 : 각각 10%·5%



정비에 나서여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소야대(與小野大)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와 민생·경제 문제 등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과제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선 야당과의 협치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가 관건이다. 또 건강한 당·정·청 관계를 만드는 일도 집권 여당의 대표에게 주어진 책무로 꼽힌다. ‘조용한 여당’에서 벗어나 목소리를 확실히 내는 ‘강력한 여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주문이 이번 전대에서 집중 제기되기도 했다. 이 대표에게 따라다니는 대야(對野) 강성 이미지와 ‘울드보이’ 이미지를 불식시키는 것도 숙제다.

한편, 8명의 후보가 치열하게 경합한 최고위원 선거에선 초선의 박주민 의원이 총 득표율 21.28%로 1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하며 김해영 신임 최고위원과 함께 ‘조선 돌풍’을 주도했다.

세월호 유가족 법률대리인을 맡는 등 여의도에 입성하기까지 인권변호사로 활약해 다른 후보보다 인지도 면에서도 월등히 앞선 것도 ‘박주민 반란’의 큰 힘이 됐다는 지적이다. 해남 출신의 박광온 의원은 16.67%의 득표율을 기록, 2위로 최고위원에 선출됐다. 박 의원의 선전은 온화한 성품과 합리적인 의정활동으로 세대와 계파를 떠나 신망이 두터운 점이 발판이 됐다는 평가다.

민주당 최연소 의원인 김해영 의원도 최종 득표율 12.28%로 선전하고 최고위원이 됐다. 김 의원은 ‘세대 혁신’을 내세우며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겠다고 강조하는 선거 전략으로 성공적인 결과를 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신임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수락 연설을 하기에 앞서 손을들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 당선 축하 전화
“9월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
여야 의원 동행 협의 중”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에게 당선 축하 전화를 걸고 다음 달 평양에서 있을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 여야 의원들이 동행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통화에서 “남북관계는 역사적 책무이기 때문에 잘 해낼 수 있도록 당에서 많은 협조를 바란다”며 “남북정상회담 때 여야가 함께 갈 수 있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고 김현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장시간 경선을 치르느라 힘드셨을 텐데 완주하고 승리해 기쁘다”면서 “이 대표와 인연이 많아 당정 관계가 궁합이 잘 맞을 것 같다”고 이 대표에게 덕담을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2012년 대선 패배의 가장 큰 원인이 중간에 그만두게 돼서 그런 것”이라며 “완주해 제대로 해 볼 수 있겠다”면서 2012년 대선 당시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 논의 과정에서 민주통합당 대표였던 이 대표가 중도 사퇴한 상황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이에 “당정청 관계를 긴밀히 풀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북한 방문 시 많은 여야 의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한다”고 요청했다고 김 대변인이 전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마리안느와 마가렛 <http://recommend.lovemama.kr/>
노벨평화상 추천 백만인 서명운동에 함께 참여해주세요



“모든 시작은 사랑이었습니다”

소록도 한센인을 위해 1962년부터 2005년까지 40여년간 간호사로서 헌신 봉사하다 빈손으로 오스트리아로 돌아간 마리안느와 마가렛의 희생과 봉사정신을 기리고 전국민의 소중한 자산으로 삼고자 노벨평화상 추천 범국민 서명운동을 전개 합니다.

그분들의 사랑은 소록도를 치유의 섬, 희망의 섬으로 만들었을 뿐 아니라 모든 인류의 가슴속에 영원한 가치로 남을 것입니다.



마리안느와 마가렛
노벨평화상 추천 백만인 서명운동

간호사 마리안느와 마가렛 노벨평화상 범국민 추천위원회



한국 정치 차세대 지도자 발돋움

‘의미있는 선전’ 송영길 의원

계파없이 수도권서 홀로 성장
인천시장 등 정치적 기반 다져
여론조사서 박빙 승부 펼치며
지지층 확장 가능성도 보여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서 2위를 한 송영길 의원에 대해 ‘의미있는 선전’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서 주목된다.

정치권에선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 초반 ‘대세론’의 이해찬 후보와 ‘친문’ (親文)을 등에 업은 김진표 후보 사이에서 송 의원이 고전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경선 열기가 고조되고 전국을 순회하는 시도당 개편대회가 본격화하면서 송 의원은 당원들의 주목을 끌기 시작했다.

우선, 송 의원이 경선 과정에서 제시한 ‘세대교체론’이 당원들에게 상당 부분 먹혀들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당권주자 중 유일한 50대 후보였던 송 의원은 경선 기간 동안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며 젊고 역동적인 민주당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장 연설도 다른 후보를 압도함으로써 상승세를 타기도 했다.

특히, 당권주자 중 유일한 호남 출신으로서 ‘호남 주자론’을 강조한 것도 호남출신이 다수인 당원 사이에서 의미있게 받아들여진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송 의원이 지난 19대 대선에서 촛불홍보단장을 맡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는 러시아 특사와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문재인 대통령을 적극 보좌한 것도 ‘친문’ 표심을 얻는 데에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인다.

송 의원이 결국 대세론을 극복하지 못하고 2위에 머물렀지만, 친문세력의 지원을 받은 김진표 의원을 제쳤으므로 이번 전당대회를 계기로 차세대 주자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송 의원은 이번 경선 결과 상대적으로 ‘세력’의 영향을 덜 받는 일반당원 여론조사에서 36.30%를 얻어 이해찬 대표(38.20%)와 박빙의 승부를 펼쳤다. 지지층의 확장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준 것이다. 송 의원은 특히, 계파없이 수도권 지역에서 홀로 성장해 인천시장을 지내는 등 정치적 기반을 다져온 만큼 이번 전대를 통해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보하면서 호남출신 정치 지도자로 도약하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송 의원은 전당대회 결과 발표 직후 당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통해 “민주당은 국민의 요구대로 변화할 것”이라며 “당선되신 이해찬 대표님과 함께 새로운 민주당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전남도당 관계자는 26일 “송 의원은 이번 경선에서 패배했지만 훨씬 많은 것을 얻었다”며 “이제 경선 후에도 호남 대표 정치인으로서 임지를 보다 확고히 하고 지지세력에 대한 스킨십을 유지, 강화한다면 다음 전당대회 또는 대선후보 경선 등에서 이번 전대보다 훨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